

보도자료	보도일시	2018년 10월 30일(화) 조간
	담당자	박종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179, jpark@kdi.re.kr)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(044-550-4155, kcjung@kdi.re.kr)
	배포일시	2018년 10월 29일(월) 09:00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외국인 국내소비의 변동과 시사점

박종호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
정규철 경제전망실 연구위원

본고는 2018년 하반기 『KDI 경제전망』에 수록될 예정입니다.

외국인 국내소비의 변동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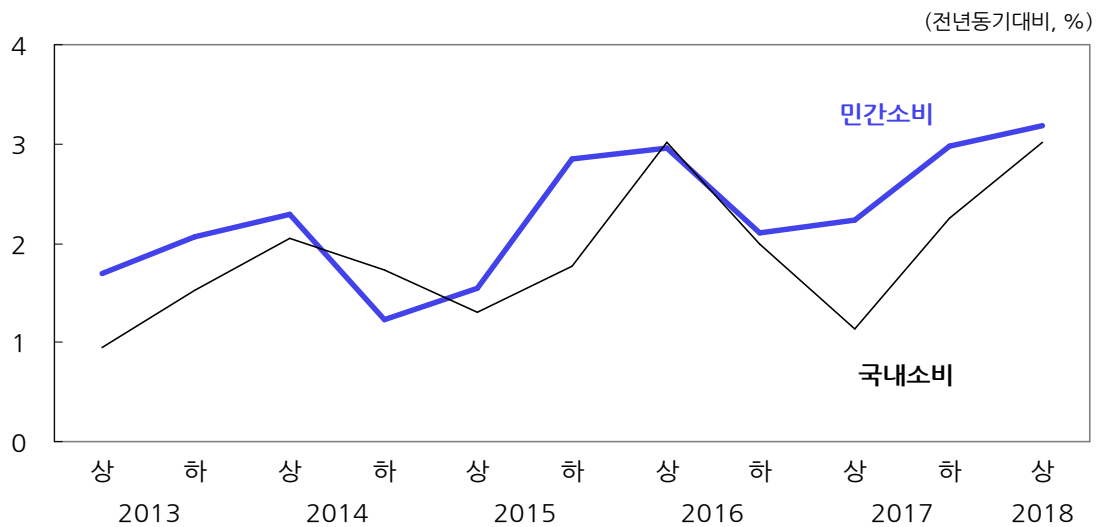
연구위원 박종호
연구위원 정규철

1. 문제제기

■ 2017년 민간소비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으나, 소비 관련 산업에서 관측되는 경기와는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므로, 그 원인과 함의에 대해 고찰할 필요

- 민간소비는 2017년 상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비교적 견실하게 회복됨.
- 반면, 서비스업 등 소비 관련 산업의 경기를 반영하는 국내소비는 2017년 중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부진하였으며, 금년 상반기 중 일부 반등하였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개선 추세는 미약한 모습

민간소비와 국내소비의 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.

■ 본고에서는 민간소비와 국내소비의 국민계정상 포괄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, 국내소비에만 포함되는 외국인 국내소비의 특징을 살펴보고 소비 관련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Box. 국민계정상 국내소비와 민간소비의 의미

■ 국내소비는 소비지출이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반면, 민간소비는 소비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됨.

- 국내소비는 내국인(거주자)과 외국인(비거주자)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한 소비의 합으로 정의됨.
- 민간소비는 내국인 가계가 국내와 해외에서 지출한 소비의 합으로 정의됨.
 - 민간소비에는 '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'의 지출도 포함되나, 그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가계와 구별하지 않고 서술함.

국내소비와 민간소비의 구성

		소비자의 거주지		
		내국인	외국인	합계
소비 지역	국내	내국인 국내소비(A)	외국인 국내소비(B)	국내소비(A+B)
	해외	내국인 해외소비(C)		
	합계	민간소비(A+C)		

■ 민간소비는 국민계정의 주요 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, 국내소비는 민간소비와 수출 항목에 분산되어 발표됨.

- 국민계정 지출항목상 내국인 국내소비는 민간소비에, 외국인 국내소비는 수출(서비스수출)에 각각 계상됨.
 - 전체 국내소비는 소비재소비와 서비스소비로 나뉘어 발표됨.
- 한편, 내국인 해외소비는 민간소비에 계상되나, 동시에 수입(서비스수입)에도 계상되어 차감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(GDP)에는 결국 포함되지 않음.
- 민간소비와 국내소비의 차이는 순해외소비(내국인 해외소비 - 외국인 국내소비)로 표현됨.

2. 국내소비 및 민간소비와 소비 관련 서비스업의 관련성

■ 최근 들어 경기와 서비스업이 민간소비보다 국내소비와 더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, 소비 관련 산업 경기를 판단하는 데 국내소비가 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.

● 국내소비와 민간소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두 변수와 GDP의 관련성도 비슷하였으나, 2015년 이후에는 민간소비보다 국내소비가 GDP와 더 유사한 흐름을 나타냄.

- 최근 국내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수(6년 이동)는 0.49로 민간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수인 0.22보다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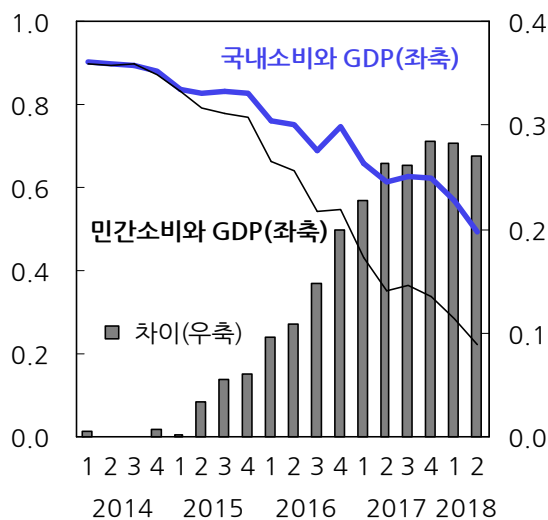
● 국내 서비스소비 및 서비스업생산이 민간소비에 비해 국내소비와 더 동조하고 있어 소비 관련 산업의 경기가 국내소비에 더 잘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

- 국내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소비는 최근 민간소비보다 국내소비와 더 유사한 흐름을 나타냄(하단 그림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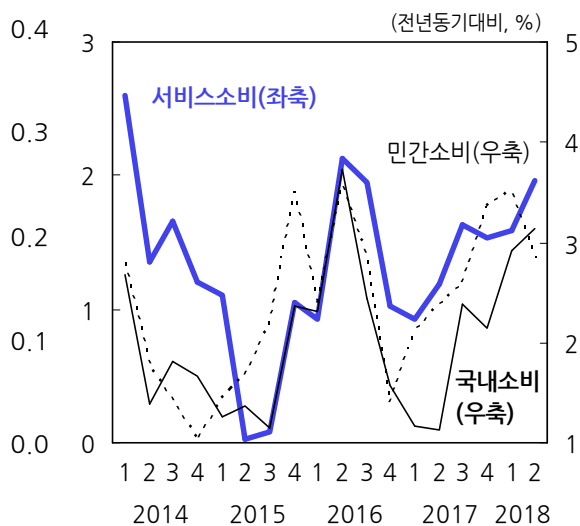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과 그 하위 항목인 음식·숙박업 생산지수와와의 상관관계수(6년 이동)도 민간소비(0.22, 0.22)보다 국내소비(0.65, 0.28)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이 결과는 내국인 해외소비보다 외국인 국내소비가 한국 소비 관련 산업의 경기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에 부합함.

국내소비 및 민간소비와 GDP의 관계



국내소비, 민간소비 및 서비스소비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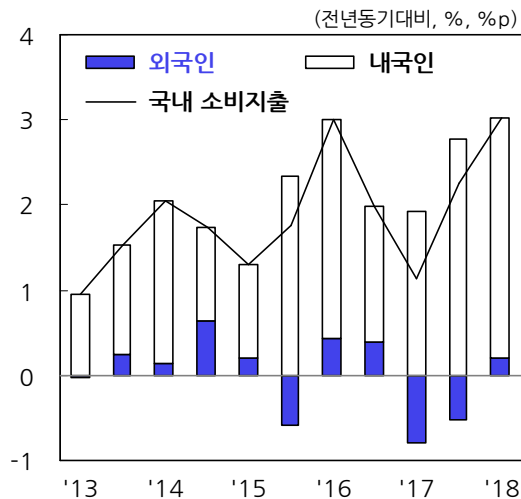
주: 왼쪽 그림은 두 변수의 증가율 간 6년 이동 상관계수를 나타냄.

3. 외국인 국내소비의 영향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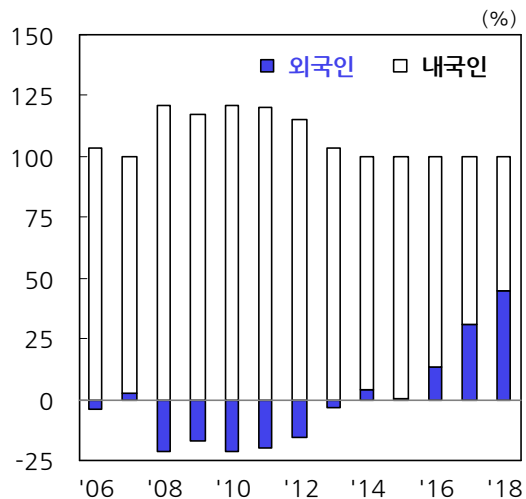
■ 2017년 중 내국인 국내소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내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내소비가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남.

- 외국인 국내소비가 전체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,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소비 변동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2005년 이후 외국인 국내소비가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.7~2.3%에 불과하나, 연간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내국인 국내소비(1.4%p)보다 높은 21.9%p에 이룸.
 -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8년 4/4분기~2009년 1/4분기에 내국인 국내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.7% 감소하며 급격히 위축되었으나, 외국인 국내소비가 151.8% 증가하면서 국내소비(-1.5%) 부진을 일부 완화한 바 있음.
- 2017년 외국인 국내소비가 전년대비 27.9% 감소하여 국내소비는 전년(2.5%)보다 낮은 1.7% 증가하는 데 그침.
 - 2017년 외국인 국내소비 감소는 국내소비 증가율이 0.6%p 하락하는 요인이었음.
 - 반면, 2017년 내국인 국내소비는 전년(2.1%)보다 증가폭(2.4%)이 확대됨.
- 변동성의 측면에서도, 글로벌 금융위기 시 국내소비 변동성을 완화하였던 외국인 국내소비는 최근 국내소비 증가율 변동에 대한 기여율이 44.7%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거주자별 국내소비에 대한 기여도



거주자별 국내소비 변동성에 대한 기여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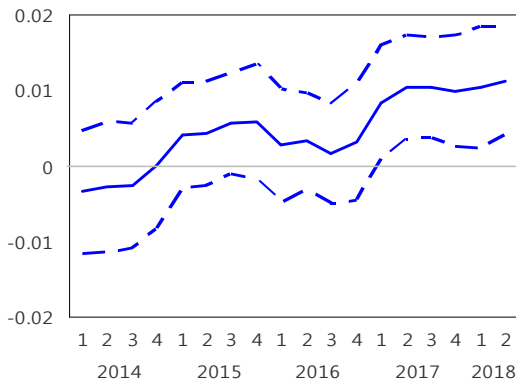


주: 오른쪽 그림은 각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국내소비 증가율의 변동성(분산)에 대한 기여율을 나타내며, 2018년은 2015년 3/4분기~2018년 2/4분기 기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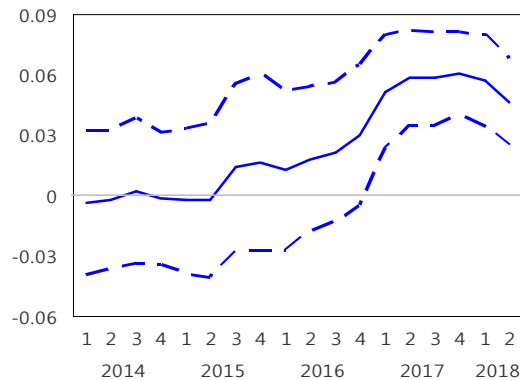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들어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경기에 대한 외국인 국내소비의 영향은 확대됨.

- 시점별로 외국인 국내소비와 서비스업 경기의 관련성을 분석함.
 - 각 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5년(20분기) 이동 회귀계수의 추이를 살펴봄.
 - 종속변수는 서비스업, 음식·숙박업(이상 부가가치 기준) 및 서비스소비(최종가치 기준)로 설정하여 소비 관련 산업의 경기를 살펴봄.
 - 설명변수에 외국인 국내소비와 함께 국내 경기의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내국인 국내소비와 국내총생산을 포함하였으며 선형 시간 추세도 추가함.
- 분석 결과, 외국인 국내소비는 서비스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그 영향력이 최근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 -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율이 1표준편차(23.8%p)만큼 상승할 때, 서비스업, 음식·숙박업, 서비스소비의 증가율은 각각 0.27, 1.10, 0.34%p만큼 상승함.
 - 최근 들어 5년 이동 회귀계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국내소비와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냄.
 - 특히, 음식·숙박업에 대한 외국인 국내소비의 회귀계수가 빠르게 상승하며 높은 수준에 이른바, 최근 동 산업의 부진이 외국인 국내소비의 감소에도 일부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

서비스업과 외국인 국내소비



음식·숙박업과 외국인 국내소비



주: 실선은 각 산업에 대한 외국인 국내소비의 5년(20분기) 이동 회귀계수이며, 점선은 95% 신뢰구간을 의미함.

외국인 국내소비의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

설명변수	종속변수		
	서비스업	음식·숙박업	서비스소비
외국인 국내소비	0.011*** (3.13)	0.046*** (4.36)	0.014*** (3.32)

주: 2013년 3/4분기~2018년 2/4분기 기준이며, () 안은 t-값을, ***는 1%에서 유의함을 나타냄.
 자료: 한국은행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.

4. 거주자별 국내소비의 변동 요인과 향후 추이에 대한 시사점

■ 외국인 국내소비는 통상 환율과 밀접한 흐름을 나타내었으나, 2017년의 외국인 국내 소비 부진은 환율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.

- 환율상승률이 1%p 오르면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율은 2.1%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, 대내외 상품 및 서비스 상대가격이 외국인 국내소비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.
 - 예를 들어, 글로벌 금융위기 시 환율 급등(원화가치 급락)에 따라 외국인 국내소비가 확대 되면서 국내 소비수요 부족을 일부 완화하였음.
 - 외국인 국내소비와 세계 GDP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.
- 2017년 국내소비 부진에는 외국인 국내소비가 전년대비 27.9%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는데, 이를 환율변동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.
 - 2017년 외국인 국내소비는 분석기간(2005년 1/4분기~2018년 2/4분기) 중 평균상승률(13.4%)을 감안하면 추세 대비 41.3% 감소하였는데, 이 중 환율 하락(2.9%)으로 설명 되는 부분은 6.1%에 불과하며, 나머지 35.2%는 환율 이외의 요인에 따라 발생함.
- 만약 2017년에 환율 이외의 요인이 외국인 국내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, 서비스업, 음식·숙박업 및 서비스소비 증가율이 각각 실적치(2.1%, -2.2%, 1.3%)보다 높은 2.5%, -0.6%, 1.8%였을 것으로 추정됨.
- 한편, 경제성장률이 1%p 상승하면 내국인 국내소비 증가율은 0.8%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이 내국인 국내소비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.
 - 내국인 국내소비와 환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음.

거주자별 국내소비 변동 분석

설명변수	종속변수	
	외국인 국내소비	내국인 국내소비
실질실효환율	2.07*** (3.03)	
국내총생산(GDP)		0.80*** (5.85)
결정계수(R ²)	0.73	0.86

주: 1) () 안은 Newey-West 표준오차를 이용한 t-값이며, ***는 1%에서 유의함을 뜻함.

2) 2005년 1/4분기~2018년 2/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였으며, 설명변수에 1~5차 시차종속변수가 포함됨.

자료: 한국은행; BIS.

■ 외국인 국내소비와 관광객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바,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수의 변동을 살펴보고 외국인 국내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을 가늠해 보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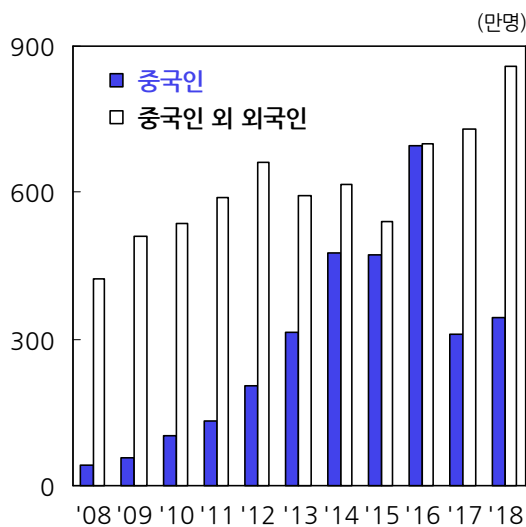
■ 2017년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례적인 폭으로 감소하면서 소비 관련 산업의 부진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.

- 2017년 중국인 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4.5%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지정학적 요인(사드 배치)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55.1% 감소하면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5.2% 감소함.
- 2018년 중국인 관광객 수는 일부 반등하였으나, 여전히 이전 수준을 하회하면서 소비 관련 산업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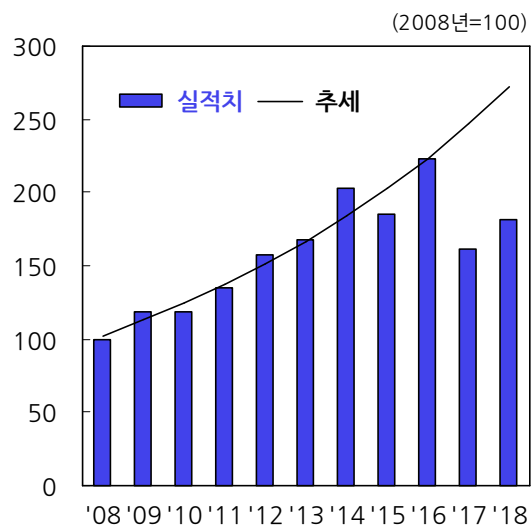
■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소비가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의 회복 속도에도 영향 받을 것임을 시사

- 향후 예상되는 경제성장세 둔화는 내국인 국내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중국인 관광객 수의 회복 속도에 따라 외국인 국내소비가 국내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환율이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조정된다면 상품수출입과 함께 외국인 국내소비도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.

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수¹⁾



외국인 국내소비 실적치와 추세²⁾



주: 1) 2018년은 1~9월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연간 수치를 산출함.
 2) 추세선은 2008~16년 외국인 국내소비의 로그 값을 선형 맞춤(linear fitting)한 후 수준 값으로 변환하였으며, 2018년은 상반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연간 수치를 산출함.

5. 요약과 시사점

■ 2017년 외국인 국내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내소비의 변동성을 확대하였으며, 서비스업 등 국내 소비 관련 산업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.

- 외국인 국내소비가 전체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, 최근 국내소비 변동성에 대한 기여율이 44.7%에 이르며 국내소비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됨.
- 2017년에 민간소비와 대조적으로 국내소비는 외국인 국내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부진하였고, 금년 상반기 중 일부 반등하였으나 개선 추세는 미약한 모습

■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소비 부진에 기여하고 있는바, 전통적 수출산업뿐 아니라 국내 소비 관련 산업의 경기에도 중국의 영향이 작지 않음을 시사

- 2017년 국내소비 부진의 주요 요인인 외국인 국내소비의 급감은 환율변동 등 통상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.
-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외국인 국내소비가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.
- 이는 국내 소비 관련 산업도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, 한·중관계 등 경제 이외의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음을 시사

■ 단기적으로는 환율 신축성을 확보하여 국내소비의 변동을 완화하는 한편,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임.

-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, 자율적인 환율변동은 상품무역과 함께 외국인 국내소비 경로를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음.
- 통상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소비 관련 서비스업도 점차 대외 경쟁에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, 대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.